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정책동향

Vol. 09

2013. 10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2013. 9. 1~9. 30)

건축문화 부문

- 한국적 공간은 한옥과 어떻게 다른가?
- 서울시, 지하철역·공공건물 3D실내공간지도 인터넷서비스
- 해외 지도, 독도·동해 등 지명표기 오류 줄어든다
- 도내 마을 지도자들의 역량이 업그레이드 된다
- '원도심 활력 충전 대전 스카이라드 준공
-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주민 여러분 "서촌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까요?"
- '201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 발표
- 그리운 고향 '3치원 공간정보'로 둘러보세요
- 청명한 가을 건축가와 함께 서울건축 산책, '건축문화투어'
- 창의적 건축·품격 있는 국토환경에 역량 집중
-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수상자 선정

녹색 건축·도시 부문

- 대전시 '제3회 도시공간정보 컨퍼런스' 개최
- 국토부, 첨단 국토교통 융복합 방안 마련한다
-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시범시설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경사업장을 찾습니다!
- 충북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2개 마을 선정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 서울거리 아름답게 만들 우수공공디자인 찾는다
- 만석동 랭이부리마을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 충남도 지적 재조사 종합계획 확정
- 지자체 공공디자인 등록, 지역별로 편차 커
- 범죄 막는 디자인 '샬레드' 확산 도모
- 제4회 충남도 디자인 인증제 심사 완료
- '2013 그린홈 으뜸아파트' 3개 단지 선정
- 서울시,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1호 마포 연남동 새 단장
- 은평구 '산새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마을공동체 더욱 탄력받는다
- 경기도, GRI와 도시주택분야 현안 해결책 모색
- 보급자리 공공로양 '25% 이상→15% 이하'로 줄여

이슈와 연구동향 | 도시농업 (2009~2013)

APU Story |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월간 건축도시정책동향 2013년 10월호 (통권 9호)

• 발행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 발행일 : 2013. 10. 25 • 발행인 : 제해성 • ISSN : 2288-274X

• 편집·인쇄 : 알래스카인디고(주) • 기획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관양동)

아크로타워 B동 706-1호 TEL. 031-478-9845 Email. kslee@auri.re.kr(이경신)

건축도시분야 정책 Updates	이달의 정책 Highlights	5
	정책 유형별 동향분석	6
건축문화 부문	한국적 공간은 한옥과 어떻게 다른가?	8
	서울시, 지하철역·공공건물 3D실내공간지도 인터넷서비스	8
	해외 지도, 독도·동해 등 지명표기 오류 줄어든다	9
	도내 마을 지도자들의 역량이 업그레이드 된다	10
	대구시, 시민 맞춤형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10
	'원도심 활력 충전' 대전 스카이라드 준공	11
	경기도, 착한 디자인을 찾았다	11
	제13회 울산 옥외광고대상전 입상작 발표	12
	서울시, 건축상 대상(大賞)에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선정	12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실시	13
	주민 여러분 "서촌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까요?"	14
	2013년 최우수 녹색도시는 문경시!	14
	'201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 발표	15
	그라운 고향 '3차원 공간정보'로 둘러보세요	16
	서울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 수립 위한 '서울·베이징·교토 국제심포지엄'	17
	청명한 가을 건축가와 함께 서울건축 산책, '건축문화투어'	17
	창의적 건축·품격 있는 국토환경에 역량 집중	18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수상자 선정	18
녹색 건축·도시 부문	대전시 '제3회 도시공간정보 컨퍼런스' 개최	20
	국토부, 첨단 국토교통 융복합 방안 마련한다	20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시범시설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21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경사업장을 찾습니다!	21
	충북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2개 마을 선정	22
	전남도, 은퇴도시 전담조직 출범 새 도약	22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서울거리 아름답게 만들 우수공공디자인 찾는다	23
	만석동 광이부리마을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24
	충남도 지적 재조사 종합계획 확정	24
	지자체 공공디자인 등록, 지역별로 편차 커	25
	광주시, 도시디자인 전문가 초청강연회 개최	25
	대전시, 원도심에 꽃이 어우러지면...	26
	경북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나서	26
	범죄 막는 디자인 '셉테드' 확산 도모	27
	제4회 충남도 다자인 인증제 심사 완료	27

'2013 그린홈 으뜸아파트' 3개 단지 선정	28
서울시,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1호 마포 연남동 새 단장	28
은평구 '산새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마을공동체 더욱 탄력받는다	29
대전시 도시계획 심의, 빨라지고 투명해진다	31
경기도, GRI와 도시주택분야 현안 해결책 모색	31
"음식점 등 서민 창업 쉽고 빠르게" 건축규제 개선	32
보금자리 공공분양 '25% 이상→15% 이하로 줄여	33
도시개발 선도사업 본격 추진	33

이슈와 연구동향 #5	도시농업 (2009~2013)	35
-------------	------------------	----

APU Story #4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50
--------------	-------------	----

이달의 정책 Highlights

▶ 건축문화 부문

이번 달 건축문화 부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가 주관하는 '2013 한국적 생활문화공간 발굴 및 확산 워크숍'이 지난 4일 문화역 서울 284에서 개최되었으며, 워크숍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사례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적 공간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또한, 서울시는 2013 서울건축문화제의 시민 참여 행사 중 하나로 '건축문화투어'를 10월 5일(토), 12일(토), 26일(토), 27일(일) 총 4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건축문화투어'는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과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서울건축문화지도' 코스 중 3코스를 둘러보게 된다.

▶ 녹색건축·도시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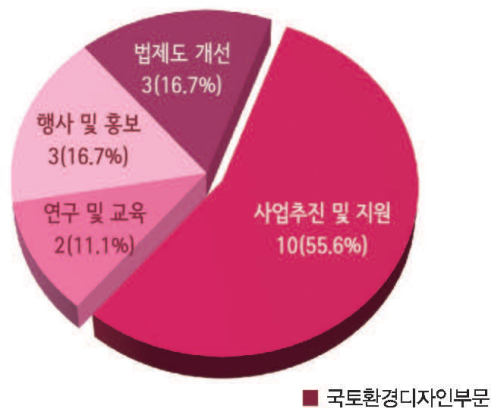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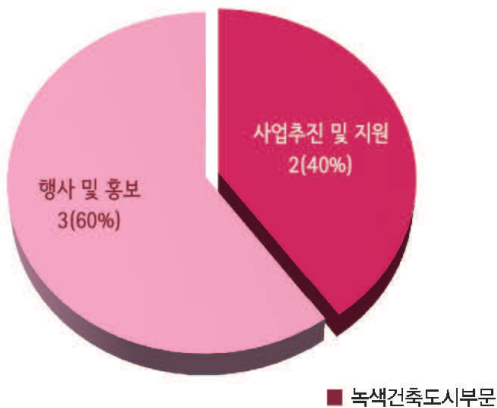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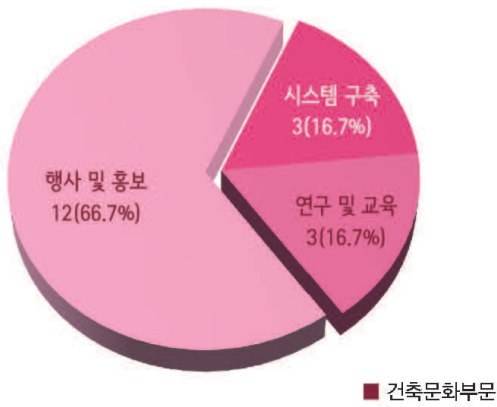
녹색건축도시 부문에서 부산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지역 공동시설, 주민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계획수립 지원, 시범시설 선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및 관리지원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12일 민간기업과 '마을 만들기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시범시설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는 '201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2개 마을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마을은 '청원 소전 벌갯마을'과 '진천 문백 공예 마을'로, 이 중 '청원 소전 벌갯 마을'은 전국에서 9개 마을을 선정하는 올해 공모사업에서 최고 수준의 마을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 국토환경디자인 부문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에서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달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는 지난 6일 제1차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충남도 지적 재조사 종합계획' 및 '2013년도 18개 사업지구 지정'을 확정하였으며, 경기도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셀테드)' 확산을 위해 각 시군 도시개발 및 건축 분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셀테드 확산을 위해 시군이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셀테드 매뉴얼이 적용된 것에는 '경기도지사 안전마을 인증제도'를 도입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 부문에 대해 세부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축문화 부문」은 전체 41건 중 18건(44%)으로 ‘행사 및 홍보’ 분야 12건(29.3%), ‘연구 및 교육’ 및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각각 3건(7.3%)의 정책사업을 발표한 것으로 정리된다.

전체 41건 중 5건(12.2%)이 발표된 「녹색건축·도시 부문」은 ‘행사 및 홍보’ 분야 3건(7.3%),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 2건(4.9%)으로 정리되며, 「국토환경디자인 부문」의 정책사업은 총 18건(44%)으로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 10건(24.4%), ‘법·제도 개선’ 및 ‘행사 및 홍보’ 분야 3건(7.3%), ‘연구 및 교육’ 분야 2건(4.9%)의 정책사업을 발표한 것으로 정리된다.

세부 분야	건축문화 부문	녹색건축 도시부문	국토환경 디자인부문	분야별 합계
계획수립	-	-	-	-
법·제도 개선	-	-	3(7.3%)	3(7.3%)
사업추진 및 지원	-	2(4.9%)	10(24.4%)	12(29.3%)
시스템 구축	3(7.3%)	-	-	3(7.3%)
연구 및 교육	3(7.3%)	-	2(4.9%)	5(12.2%)
행사 및 홍보	12(29.3%)	3(7.3%)	3(7.3%)	18(44%)
총 합계	18(44%)	5(12.2%)	18(44%)	41(100%)

■ 부문별 세부분야

전반적으로 9월 보도된 정책과제들은 전체 41건 중 ‘행사 및 홍보’ 분야의 정책과제가 18건(44%)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그 다음 많이 발표된 정책과제가 ‘사업추진 및 지원’ 분야로 12건(29.3%), ‘연구 및 교육’ 분야 5건(12.2%), ‘법·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각각 3건(7.3%)의 보도자료가 발표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적 공간은 한옥과 어떻게 다른가?

2013 한국적 생활문화 공간 발굴 및 확산 워크숍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가 주관하는 '2013 한국적 생활문화 공간 발굴 및 확산 워크숍'이 9월 4일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개최된다.

한국적 생활문화 공간 발굴 및 확산 사업은 한국드라마(K-Drama)에서 시작하여 한국음악(K-Pop), 한국문화(K-Culture)로 한류 열풍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인 한국적 실내공간에 대한 연구, 발굴 및 확산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이번 워크숍은 지방자치단체 시설·건축담당 공무원과 건축·실내 디자이너 등 현장 실무자들이 한국적 공간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워크숍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이강민 센터장 '한국적 공간의 개념 및 사례'- 한국적 공간의 정의, 한옥과 한국적 공간의 차이점 ▲하우스 스타일 김주원 대표 '한국적 공간 개념을 적용한 사례와 조성 방안'- 2012 시범공간(통영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공간) 사례 ▲필립건축사사무소 이기옥 소장 '한국적 생활문화공간 조성 사례와 조성 방안'- 2012 한국적 생활문화 우수공간 지도하우스 사례)

문체부 관계자는 "민간에서도 문화적 품격을 높일 수 있는 한국적 공간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지속적으로 민간의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시상 등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09.02.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

서울시, 지하철역·공공건물 3D실내공간지도 인터넷서비스

앞으로 서울시내 지하철과 공공건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공공 건물의 실내공간을 인터넷에서 3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9.3(화) 전국 최초로 3차원 실내공간 모델링 구축 사업을 통해 완성된 지하철 역사 및 공공건물에 대해 '3차원 실내공간 지도'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3차원 실내공간 지도'는 지상 또는 지하에 존재하는 건물의 내부에 관한 정보를 준공도면과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3차원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현장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복잡한 실내공간을 직접 확인 가능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복잡화되고 실내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실내공간에 대해 안전과 편의성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시설물관리 및 소방·건급 구조 등 행정업무에 활용성이 대두되고 있어 서울시 주요 다중이용 시설물인 공공건축물과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3차원 실내공간 모델링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3차원 실내공간지도 시범서비스 시설

시 설 명		위 치	건물규모
공공 건물	역삼문화 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길 16 (지번주소 : 강남구 역삼동 829-20)	지하 3층 ~ 지상 5층
	종량구립정보 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량구 신내로15길 197 (지번주소 : 종량구 묵동 22)	지하 1층 ~ 지상 4층
	동대문구민 체육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북로 77 (지번주소 : 동대문구 장안1동 356)	지하 2층 ~ 지상 4층
지하철 역사	청구역	5호선, 6호선 환승역	지하 4층 ~ 지상 1층
	디지털미디어 시티역	6호선, 경의선 환승역	지하 2층 ~ 지상 2층
	강동역	5호선 환승역	지하 4층 ~ 지상 1층

2013.09.03.
서울시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해외 지도, 독도·동해 등 지명표기 오류 들어온다

영문판 전자지도 제작...네비게이션 등 공간정보산업 수출 지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 정보원은 영문판 전자지도 제작을 완료하고 10월 1일부터 국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해외 서비스는 관계 기관 협의 및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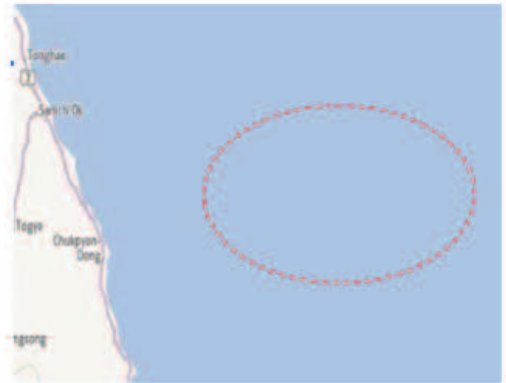
- * 영문판 전자지도 : 국토의 현황을 1/25,000 축척으로 표현한 수치지도의 지명에 대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과 원어인 검증 등을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문으로 제작한 전자지도로서 정부 간 국제협정 및 교섭, 민간업체 해외 진출(네비게이션, 포털지도 등), 해외 관광객 유치 등에 활용

영문판 전자지도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지명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해외 지도 서비스(구글, Bing 등) 개선 및 공간 정보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위하여 제작하였다.

최근 주요 인터넷 등의 해외 지도 서비스에서 독도·동해 등 우리 영토와 관련된 지명의 표기 오류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지명을 명확하게 각인시키고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적극적인 지명 관리와 지도의 해외 반출 등 대외의 요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 지도 서비스의 국내 지명 표기 오류가 줄고, 제한적인 국내 서비스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 * 지명은 국제협력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 정보(위치기반서비스, 가상/증강현실 등) 관련 산업의 기본으로,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산업의 중요한 융합 기반 인프라

- * 해외 주요 지도서비스(社)의 지명표기 오류



■ Google(지명표기오류)



■ Bing (로마자 표기 불일치)



■ Yahoo (지명 누락)

또한, 영문판 전자지도는 민간업체(내비게이션, 포털 지도 등)의 영문 POI 서비스*에 활용됨으로써, 민간의 개별 구축에 따른 중복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업체에서 교통정보 등을 반영해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등을 개발하여 해외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 교섭 및 협력,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 등 공간정보 분야의 창조경제 실현에도 기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영문 POI(Point of interest) 서비스 : 인터넷 지도상에서 지명, 지형·지물의 명칭, 상호, 건물명 등의 검색을 지원하는 서비스

앞으로도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1/25,000 영문판 전자지도의 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영문판 전자지도의 제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3.09.04.
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도내 마을 지도자들의 역량이 업그레이드 된다

2013 마을 만들기 리더 아카데미, 12일부터 이틀간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역 주민의,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 주민을 위한 살만한 마을, 활력 있는 마을 형성을 목표로 마을 발전사업 추진동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을 이장 및 사무장,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및 마을 발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추진 주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이틀간 2013 마을 만들기 리더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마을 만들기 리더 아카데미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 마을 만들기 및 도내 우수마을 사례 등 마을 전문교육 프로그램 진행과 아울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찾는

마을 방문객들의 안전한 체험활동 및 유사시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및 식품안전 관리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체험객들이 안심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해 즐길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도민은 오는 9월 6일 금요일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마을 만들기 리더 아카데미를 통해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마을발전 사업 추진 주체의 전문성을 배양하여 도내 모든 마을에서 지역주민에 의한 마을 만들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3.09.04.
제주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마을발전지원담당

대구시, 시민 맞춤형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국토교통부로부터 시민소통·주민참여 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

대구시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도시·지역개발 및 도시재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행정과 시민 소통강화와 도시개발 사업의 시민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해 9월 25일부터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을 시작했다.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지역개발 및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한 무료 수강으로 이론 및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세무사·감정평가사 및 관계공무원으로 강사진이 구성되어 있다. 강사진은 도시재생에 대한 사례와 세무이야기, 소송·판례 및 등기이전 등 생활 속에 필요하고 궁금한 내용으로 진행하며, 특히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국토교통부 담당과장을 초청해 정부의 도시정책 방향에 대한 특강의 시간도 마련한다.

2011년부터 운영해 온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과 일반시민, 학생,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으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아 이미 6회에 걸쳐 1,058명이 참가했다. 매회 참가했던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강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하는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로 운영해 오고 있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부「3.0」 및 시민소통·주민참여 부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도 있다. 이번에 개설하는 제7기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9월 25일부터 6주 동안 매주 수요일 야간(저녁 7시~10시)에 개설·운영한다.

대구시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이전의 전면철거 방식에서 원주민 보호와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주민참여형 재생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행정과 시민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3.0」정책에도 적합한 프로그램인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09.0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과

를 대외적으로 알려주는데도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스카이로드 개장식

2013.09.06.
대전광역시 도시활성화기획단

‘원도심 활력 충전’ 대전 스카이로드 준공

응능정이 거리에서 시간대별 매일 30분 영상 쇼

대전시는 중구 응능정이거리에서 길이 214m, 폭 13.3m, 높이 20m 국내 최대 규모의 초대형 LED 영상시설인 ‘대전 스카이로드’ 준공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염홍철 대전시장의 민선5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추진한 대전 스카이로드는 지난달 12일 완공, 지난 4일 대전 스카이로드에 대한 시민의 관심에 부응하고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해 시연회를 열어 영상콘텐츠 전반을 선보였다.

앞으로 대전 스카이로드 운영은 하절기에는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동절기에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시간대별로 매일 30분 동안 메인 LED 스크린을 통해 아트 영상물 15분, 공익 및 상업 광고 15분으로 사계절 국내 최대의 영상 쇼를 연출할 계획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대전 스카이로드 탄생으로 원도심 상권회복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전의 새로운 볼거리로 관광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많은 시민이 대전 스카이로드를 자주 찾아와 즐겨 주시고 대전의 랜드마크

경기도, 착한 디자인을 찾았다

제7회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우수작 선정 발표(44점)

경기도가 유니버설 디자인 중심의「안전하고 쾌적한 공공디자인」라는 주제로 실시한 제7회 공공디자인 공모전 입상작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공공매체(시각) 디자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공공간 디자인 등 3개 분야에서 298점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7월에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44점의 입상작을 선정하였고, 이번 2차 패널 심사에서 창의성, 지속 가능성, 기술과 소재의 적합성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대상 1, 금상 1, 은상 2, 동상 4, 특선 13, 입선 23점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대상작으로 선정된 ‘45°(twist)’는 자전거의 종류, 바퀴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손쉽게 자전거 핸들을 회전시켜 간단하게 거치하는 동시에 잠김과 열림을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한 사용자 우선의 디자인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은상 수상작인 ‘more safe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자동차 정지선과 멀리 떨어져 도

로를 횡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횡단보도 디자인을 대각선 형태로 변경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디자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수상자들에게는 대상 500만 원, 금상 300만 원, 은상 각 200만 원 등 총 2,090만 원의 시상금이 안전행정부 장관상, 경기도지사 상장과 함께 수여되며, 금년 10월부터 경기도 및 관계 기관, 경기도 시군을 순회하며 전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유한옥 디자인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이 연령과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 문화를 구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상〉 45° (twist) - 김종국 (협성대학교)

2013.09.06.
경기도 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팀

제13회 울산 옥외광고대상전 입상작 발표

창작광고물 모형 분야 '귀로'등 40작품 선정

‘제13회 울산 옥외광고대상전’ 입상작이 선정됐다. 울산시는 울산시 옥외광고협회(협회장 이용수) 주관으로 ‘제13회 울산 옥외광고대상전’에 응모한 작품(총 73개)에 대해 심사를 시행, 총 40개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입상작을 보면, 창작 광고물 ‘모형’ 분야(일반)에서는 ‘귀로’(대상) 등 10개 작품이, 창작 광고물 ‘도안’ 분야에서는 ‘동신참치(일반 금상)’와 ‘DIY cafe 나담(학생 금상)’ 등 30개 작품이 입상작으로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6일 울산대공원 수석전시실 앞에서 열리고 9월 2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전시되며, 우수작은 대한민국옥외광고 대전에 출품된다.

2013.09.09.
울산광역시 도시디자인과

서울시, 건축상 대상(大賞)에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선정

공공 기여도·예술적 가치·기술 수준 등 서울의 건축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작품 선정

서울시는 올해 서울특별시 건축상 大賞에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설계자: 한중률,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및 일반 부문에서 최우수상 4작품과 우수상 17작품, 대학생 부문에서 최우수상 1작품과 우수상 7작품 등 총 30작품을 선정·발표했다.

‘서울특별시 건축상’은 올해로 31회를 맞이하는 명실상부한 서울시 건축분야 최고권위의 상으로서, 공공기여도가 탁월하

고 예술적 가치와 기술적 수준이 뛰어난 서울의 건축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작품을 매년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 건축상 심사는 공개발표회를 통해 작품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건축가의 구상과 의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여 관계 전문가는 물론 대상행 등 일반시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 영예의 大賞 수상작으로 선정된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문화적 소외된 서울시 북동부에 위치한 미술관으로, 국제 현상설계를 거친 만큼 디자인과 시공의 완성도와 골고루 우수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서울시 건축상'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 표창이, 건축주에게는 건축물에 부착하는 기념 동판이 수여되며, 건축상 시상 및 수상작 전시는 다양한 건축 관련 전시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보강한 '2013 서울건축문화제'에서 진행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서울시 건축상을 통해 건축문화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과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아가겠다."며, "올해의 건축상과 서울건축문화제가 서울시의 건축디자인 정책이 시정 현장에서 실현되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많은 시민들이 우수한 건축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2013.09.10.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실시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진행

부산광역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오는 10월 1일부터 마을주민, 대학생, 마을활동가, 마을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은 기초과정, 심화과정(I, II), 마을전문가 워크숍, 명사특강 등의 단계별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기초과정, 심화과정(I, II)에 총 110명의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기초과정은 마을주민, 마을활동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마을 만들기의 이해, 주민 조직화, 마을현장실습 등을 내용으로 진행한다. 심화과정은 기초과정 수료자, 마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전문과정과 커뮤니티 디자인 전문과정으로 시행된다. 또한, 주기적으로 마을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며, 교육생들의 상시 요구 및 필요에 따라 마을 만들기 특강도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 수료 사항에 따라 인증서가 교부되며 ▲지원센터 공모사업 제안 시 우대 ▲각종 교육, 워크숍, 답사지원 ▲신청 시 마을강사, 마을상담원으로 활동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2013.09.11.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주민 여러분 "서촌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까요?"

서촌 마을 공동체 조성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워크숍 개최

서울시는 13일(금) 10시 20분부터 90분간 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서촌 마을 공동체 조성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 워크숍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 지역단체 및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서촌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촌은 조선 전·중기 사상과 문학·예술의 중심지이며, 조선 후기 중인들의 생활·문화·예술의 거점지역이었고, 근대에는 문학가·음악·화가 등의 활동 근거지였다. 현재 이 지역은 필운대, 황학정, 창의궁터, 세종대왕 탄신지, 서울성곽 등 근현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유산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수대에 걸쳐 살아온 지역 애착심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자생적 주민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사람 사는 정취가 가득한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로 구현하고, 지역 분위기를 유지하는 종합적 관리 체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으로, 정책 워크숍에서 수렴한 의견들은 향후 수립 예정인 '서촌 마을공동체 추진계획' 수립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이날 정책에서는 시가 지난 2001년부터 10여 년간 추진한 '북촌 가꾸기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현재 북촌은 한옥 밀집지로서 한옥 경관 회복과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꼭 가 봐야 할 전통문화지역으로 거듭나는 반면 일부 지역의 상업화 가속 및 정주 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정책워크숍은 서울시 인터넷 TV(<http://tv.seoul.go.kr>),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 서촌지역 현황



■ 서촌의 전경(인왕산, 북악산 일대)

2013.09.12.
서울시 정책정보실 건축기획과

2013년 최우수 녹색도시는 문경시!

산림청, 제7회 지자체 녹색도시 우수사례 선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에서는 2013년 지자체 녹색도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에는 경북 문경시의 모전공원 도시숲과 문경새재 가로수가 선정되었고, 경기도 안성, 울산 동구, 전남 완도군이 우수 도시숲으로 선정되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는 도시숲과 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문화적인 기능 등이 우수한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시상함으로써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우수에 선정된 문경시의 모전공원 도시숲은 8.3ha에 달

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시에서 몇 년에 걸친 예산확보 과정을 통해 부지를 매입하고 도시숲으로 조성한 곳이다. 과거 방치되다시피 한 곳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한 사례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박도환 과장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고령화 등 경제·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여가시간을 활용해 경제적 부담이 없는 생활권을 중심으로한 도시숲에 대한 요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며, 이에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시숲 조성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며 지체에서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경시 모전공원 도시숲

2013.09.13.
산림청

'201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작 발표

우수사례 부문 대상 '정선 삼탄아트마인 공공디자인
지역재생 프로젝트' 디자인 아이디어 부문 대상
'공중화장실용 자동접이식 선반 Easy-to-put'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대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문체부가 주최하고 (재)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문화적 가치를 지향하는 공공

디자인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 시상하여 바람직한 공공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우수사례 부문 대상으로 선정된 '정선 삼탄아트마인 공공디자인 지역재생 프로젝트'는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공공디자인 개념을 넘어 공공디자인이 풀어야 할 다층적인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녹여낸 선도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삼탄 아트마인은 폐쇄된 구 삼척탄좌 정암광업소(1962~2001)의 탄광현장 및 기계, 광부자료 등 역사적 자료와 장소적 콘텐츠를 재활용하여 올해 5월 개관하였다. 이곳은 기존 여러 지역에 위치한 석탄박물관을 답습하지 않고 다양한 기획 전시,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기념품 개발을 통해 '문화예술광산'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우수사례 부문의 최우수상은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배영환 작가가 기획한 '내일을 여는 책방'에 돌아갔다. 느리게 읽는 미술 책방(수원), 솔바람 책방(광주), 땀뽕이 책방(시흥), 나와유 책방(남양주), 배꼽마당 책방(양평)으로 구성된 이들 책방에서는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콘텐츠를 개조하여 공간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가 내일을 열어가는 기반인 책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공공디자인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디자인 아이디어 부문 대상에는 성균관대학교 권민희 외 3인의 'Easy-to-put'이 선정되었다. 'Easy-to-put'은 사용자를 배려 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공중 화장실용 자동 접이식 선반이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자동으로 접히고, 문을 닫으면 펼쳐져서 소지품을 편리하게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는 작은 아이디어를 통해 사소한 일상의 변화를 기획하고, 나아가 공공의 편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의 그 외 수상작으로 우수 사례 부문에서 우수상 1건, 입선 3건, 디자인 아이디어 부문에서 우

수상 2건, 입선 3건, 연구부문에서 입선 2건이 선정되었다.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오는 10월 17일, 문화역서울284 중앙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상장 수여와 함께 대상 수상작 프레젠테이션과 전시가 진행된다.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문화 및 삶에 밀착된 공공디자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문화적 가치를 지향하는 공공디자인 우수 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 확산하는 데에 기여할 계획이다.



■ 우수사례 부문 대상 ‘삼탄아트마인 공공디자인 지역재생 프로젝트’



■ 디자인 아이디어 부문 대상 “Easy to put”

2013.09.16.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그리운 고향 ‘3차원 공간정보’로 둘러보세요

도, 3차원 공간정보 인터넷·모바일서비스 적극 활용 당부

충남도는 추석에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출향 도민에게 도내 전역의 각종 공간정보를 고해상도의 항공 영상 기반으로 통합 구축한 ‘충남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을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은 지적도, 지형도, 용도지역도, 토지정보, 건물정보, 도로명주소 등 각종 공간정보를 담은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든 PC로 인터넷 접속(<http://3dgis.chungn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충남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은 고해상도 항공 영상 기반으로 현실 세계와 같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인허가 등 각종 행정업무에 활용함은 물론, 도민들이 고향을 컴퓨터 상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는 듯한 3D 비행시뮬레이션으로 둘러볼 수 있는 등 다양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들과 고향 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출향 도민들도 3D 비행시뮬레이션으로 고향을 둘러보는데 충청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남도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은 지난 2010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해 2013년 8월 말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한 건수가 일일 평균 5,000건이 넘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도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12월 ‘충남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남도 공간정보 모바일 서비스’(<http://m3dgis.chungnam.net>)를 구축해 도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업무 활용과 도민 생활편의 증대 등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의 많은 활용을 부탁했다.

2013.09.16.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공간정보담당

서울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 수립 위한 '서울·베이징·교토 국제심포지엄'

'베이징의 역사문화보호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교토의 역사적 도시경관의 보전'

서울연구원(원장 이창현)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진)와 공동으로 9.25(수)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서울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베이징·교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동북아를 대표하는 역사도시인 서울, 북경, 교토의 역사도심 보존 및 관리정책을 공유하고, 각 도시의 성과와 문제점을 고찰하여 '서울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의 관리정책과 실현화 방안에 반영하고자 한다.

주제발표는 평 페이페이 북경성시규획설계연구원 성시설계소장이 '베이징 역사문화명성 보호계획의 성과와 전망'을, 테라다 토시노리 교토 경관·마치즈꾸리 센터 사무국장이 '교토의 역사적 도시경관의 보전'을, 임희지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이 '서울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안)'을 각각 발표한 후, 서울시립대 김기호 교수를 좌장으로 6명의 토론자와 함께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이다.

평 페이페이 소장은 "베이징 역사문화명성 보호계획의 성과와 전망" 발표에서 1980년대부터 베이징을 '역사문화명성구'로 지정하여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베이징의 역사문화명성 보호정책의 내용을 소개한다.

테라다 토시노리 사무국장은 "교토의 역사적 도시경관의 보전" 발표에서 1970년대부터 교토시의 역사문화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높이관리 및 역사문화지구 가꾸기의 추진과정과 2007년 새롭게 변화한 역사경관보호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안)'은 지난 4월 대토론회를 통해 설정한 미래상과 관리방향을 토대로 7~8월 동안 7개 지역별로 주민들의 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구체화한 내용을 발

표할 예정이다.

이창현 서울연구원장은 "동북아를 대표하는 역사도시들의 역사보존 및 도시관리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내실 있는 '서울 역사도심 관리 기본 계획' 수립에 기여하고, 이를 계기로 향후 도시 간 학술교류 및 정책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동아시아 역사도시 간의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3.09.24,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청명한 가을 건축가와 함께 서울건축 산책, '건축문화투어'

서울시, 서울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문화투어 개최

서울시는 2013 서울건축문화제의 시민참여 행사 중 하나로 건축가와 시민이 함께 하는 건축문화투어를 10월 5일(토), 12일(토), 26일(토), 27일(일) 총 4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10월 5일(토)에는 현대건축의 트렌드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제31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 투어로,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시립대학교 선벽원, 진관사 템플스테이 역사관, 성수문화복지회관을 설계한 건축가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10월 12일(토), 26일(토), 27일(일)에는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서울건축문화지도' 코스 중 3코스를 먼저 만나볼 기회로, 600년 역사의 서울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한양도성」 코스와 도심 속 근대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정동과 덕수궁」 코스,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서울의 사회문화 중심지인 「세종대로」 코스 속의 숨겨진 건축물의 이야기를 듣고 건축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2013 서울건축문화제는 10.21(월)~10.27(일) 7일간, 서울시

청 1층 로비, 서울광장,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에서 전시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건축문화투어 외에도 서울시 건축상 시상 및 수상작 전시, 다양한 건축 관련 전시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에는 대한민국건축문화제와 통합 개최·운영하여 시민들이 좀 더 폭넓은 건축문화를 즐길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건축문화투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의 의미 있는 건축물을 찾아 그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600년 역사도시 서울의 건축문화를 보다 쉽고 즐겁게 향유하고, 나아가 좋은 건축, 좋은 도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축문화투어 일정(안)

일 자	구 분	코 스	인 술 건축가
10월 5일	서울시건축상 수상작투어	진관사,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시립대 선박원, 성수문화복지회관	김지훈
10월 12일	세종대로	서울도서관 일민미술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화문, 성공회서울성당, 서울시립미술관	조성욱
10월 26일	한양도성	소덕문터, 돈의문터, 창덕여중, 월암근린공원, 기상청 별관, 흥남파가옥	김기홍
10월 27일	정동과 덕수궁	덕수궁,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배재학당, 정동교회, 이화여고 심슨기념관, 중명전	유해연

2013.09.25.
서울시청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창의적 건축·품격 있는 국토환경에 역량 집중

2013 건축의 날...창조경제 동력으로서 미래건축 비전 제시

“2013 건축의 날” 행사가 9.26(목) 14:00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인사와 건축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창조경제 주체로서 미래 건축 비전을 공유하고 건축의 공공성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건축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품격 있는 국토환경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번 행사는 우수 건축작품 전시와 오명 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건축유공자의 공로를 치하하는 기념식과 건축인 선언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경과 및 추진계획 발표회도 가져 동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각오를 다짐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 행사가 미래건축에 대한 비전 제시를 위해 건축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건축이 창조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창의적 건축설계, 기술 개발 등 미래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3.09.26.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수상자 선정

대상에 풍기읍사무소(최재원)·지역사회와의 소통노력 돋보여

올해 처음 제정된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대상 수상작으로 '풍기읍사무소(건축사: 최재원)'가 선정되었다. 또한, 'Y RESORT JEJU'와 '청라 커널 큐브'가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역과의 소통,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 구현 등이 선정 배경이다.

국내 건축사 자격 취득 만 10년 이내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상으로 한 올해 공모에는 총 32명의 신인건축사가 지원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최종 12명이 선정되었다.

구분	수상자	작품명	건축사 사무소 명	출생 년	출신교
대 상	최재원	풍기읍사무소	디자인그룹 오즈	77	서울대
최우수상 (무순위)	김대훈	Y RESORT JEJU	더건축	72	인하공전
	홍만식	청라 커널큐브	리슈	71	서울시립대
	강재용	오디빌딩	오다	76	울산대
	강한성	다락방(多樂芳)	푸름인	69	홍익대
	김경희	동송동 모 베타 블루스	모도	72	홍익대
	김영중	루키 1129	리움플랜	71	홍익대
	곽은선	목3동 시장고객지원센터	이에스	75	한양대
	선상희	언덕위의 바람집	SUP	77	동국대
	신승현	드래곤플레이DMC타워	아이마크	69	한양대
	정기정	원당리주택	유오에스	69	서울시립대
우 수 상 (무순위)	홍양표	YL빌딩	수가	76	서울시립대

국토교통부는 대상 및 최우수상 선정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우수상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건축산업대전(10.23~26, 코엑스) 등과 연계하여 수상작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자와 작품을 소개하는 작품집 제작, 건축전문 잡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및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수상자들에게 다양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잠재력 있는 신인건축사들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2013.9.30.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작품의 완성도, 신인건축사로서의 창조적 역량 및 건축주·시공자와의 원활한 소통 능력 등을 기준으로 진행된 심사(심사위원장 류춘수)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진행된 최종 심사결과, 올해의 대한민국 신인건축사대상은 최재원 건축사의 '풍기읍사무소'가 선정되었고 최우수상에는 김대훈 건축사의 'Y RESORT JEJU'와 홍만식 건축사의 '청라 커널 큐브'가 각각 선정되었다.

대상 수상자인 최재원 건축사의 '풍기읍사무소'는 건축주인 영주시 및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활용성을 극대화한 건축공간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김대훈 건축사의 'Y RESORT JEJU'의 경우, 기존 아파트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대지를 지금의 아름다운 리조트로 탈바꿈시킨 점 등에서 지역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 또 다른 최우수상 수상자인 홍만식 건축사의 '청라 커널 큐브'는 1층에 상업공간 대신 보행통로 및 대지 전·후면 연결 물길을 계획하였으며, 여러 층에 중정을 설치하는 등 상업시설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공간을 배치한 점 등이 평가의 좋은 요소가 되었다.

출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3.09.06.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시범시설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부산광역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동국중전기(주)

부산광역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센터장 김동호, 이하 지원센터)와 동국중전기주식회사(대표 오명공, 이하 회사)가 9월 12일 오후 5시 지원센터에서 부산지역 주민 주도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마을 만들기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시범시설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는다.

이번 협약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체결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회사는 ▲지역 공동시설,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계획수립 지원 ▲시범시설 선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및 관리지원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 행정 및 관련기관 지원 수급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원센터는 ▲회사의 고유한 기술 및 시설 설치 대상 공개 선정 ▲회사의 기술 및 지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향후 기술발전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등 회사의 마을 만들기 지원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협약 체결 후 회사는 태양광발전시스템 2set(3,000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2회에 걸쳐 기술 설명회를 진행한다. 또한 지원센터와 회사는 태양광발전시스템 대상지 선정을 위해 부산시 전체에 공모를 실시하고 지원센터와 회사, 전문가 등 5~6인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낙후지역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13.09.13.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경사업장을 찾습니다!

'제2회 아름다운 조경상' 공모

부산지역 최고로 아름다운 조경사업장은 어디일까? 부산시는 지역 내 우수한 조경사업장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조경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품격 높은 명품 그린 부산 실현을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제2회 아름다운 조경상'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10월 15일까지이며 공모대상은 최근 3년 내 (2011.1월 이후) 부산광역시에 조성된 1,000㎡ 이상의 모든 조경사업장(공공분야, 민간분야 모두 포함)이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조경공사 발주처, 설계자 및 시공자는 관련 서류(응모신청서, 응모작 패넬)를 작성하여 부산시 녹지정책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들은 창의성, 주변과의 조화, 시공완성도, 유지관리 등을 기준으로 2차(예비, 최종)에 걸친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사를 통해 11월 중 대상 1, 베스트상 1, 특별상 2 등 총 4개소를 선정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과 베스트상은 시공현장에 기념 동판을 제작 부착하여 상징성과 자부심을 부여하고 설계자 및 시공자에게는 부산시장의 상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작품은 조경 관련 전시회에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 실국 홈페이지 바로 가기(환경녹지국) →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부산시 이윤형 녹지정책과장은 "부산광역시 아름다운 조경상은 뛰어난 조경지를 발굴 홍보하여 지역의 조경수준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품격 있는 그린 부산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하고, "이번 공모전에 많은 조경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제1회 아름다운 조경상' 공모에서는 대상에는 해운대 소공원(제네시스), 우수상은 화명동 롯데캐슬 카이즈아파트 조경, 부경대 수경시설조성, 기장 캐스빌 블루 1차 아파트 조경이 각각 선정되었다.

2013.09.27.
부산광역시 녹지정책과

충북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2개 마을 선정

충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1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서 ‘청원 소전 벌랫 마을’과 ‘진천 문백 공예 마을’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2종 이상의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등)을 함께 설치하여 마을 단위 또는 개별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에너지원 간 융합과 지역특성에 최적화된 시스템 설비 보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북도는 전국에서 9개 마을을 선정하는 금년 공모사업에서 ‘청원 소전 벌랫 마을’이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는 등 도내 2개 마을이 선정되어 전체 국비의 20%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기존의 단순 1차원적인 발전시설 지원에서 벗어나 마을별 특성을 활용한 사업계획을 발굴하고, 지자체와 전문기업, 민간 수요자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된다. 2014년까지 국비 14억 1천7백만 원 등 총 29억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마을회관 등 공용시설과 개별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된다. 도는 이 융복합사업 추진으로 매년 총1,809MWh의 전기 생산 효과와 가구당 연평균 33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융·복합지원 사업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모델로 다양성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융복합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신재생에너지 보급 효과와 사업성고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09.27.
충청북도 공보관

전남도, 은퇴도시 전담조직 출범 새 도약

사업 활성화 계획 세워 체계적 추진·기반시설
지원 법률 제정 건의도

전라남도가 장수 100세 시대 7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대비하기 위해 ‘은퇴도시담당관실’을 신설, 은퇴도시 조성사업 활성화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따뜻한 기온, 천혜의 자연경관, 낮은 지가와 물가 등 은퇴도시 입지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개발 예정지 46개소를 선정해 은퇴도시 조성 개발사업자를 모집해왔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신설된 은퇴도시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은퇴도시 조성사업 활성화 계획’에 따라 기존에 추진해왔던 대기업, 정부 투자기관, 금융권 대상 투자유치 활동과 각종 언론매체 및 투자 서한문 발송 등 각종 홍보활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추진했던 추진 실태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 사업자의 부지 확보 애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분위기 위축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시군 및 전남개발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은퇴도시 조성 관련 지원법률이 따로 없어 인허가 절차가 복잡한데다 사업지구 진입로 개설 및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민간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감안,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조례 제정도 추진하는 등 제도적 차원의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전라남도 은퇴도시담당관은 “조직 신설과 함께 추진하는 ‘은퇴도시 조성사업 활성화 계획’에 따라 선도사업 지구를 중점 개발해 성공모델을 제시하겠다”며 “다른 사업지구는 단계적 개발방식으로 추진해 은퇴도시를 내실 있게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장흥 정남진 로하스타운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해 13세대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통합의료센터 건립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09.02.
전라남도 은퇴도시담당관실

서울거리 아름답게 만들 우수공공디자인 찾는다

3일(화) 제11회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공고,
10.7(월)~14(월) 신청 접수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간과 조화로운 공공시설물에 대해 디자인 인증을 하는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의 제11회 선정계획을 3일(화) 발표했다.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도시의 개성과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하고 가치 있는 디자인 생산을 촉진하여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공공시설물의 기초 제작단계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디자인적 공공성 확립의 기초가 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벤치, 볼라드, 휴지통, 음수대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 예정인 시제품으로, 이번 인증제에서는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사용 활성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양식, 접수 방법, 선정기준 등의 공고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10월 7일(월)~14일(월)까지 접수하고 서류심사 및 현물심사를 거쳐 12월 4일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신청서는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온라인 시스템(<http://sgpd.seoul.go.kr>)에서 접수하고, 1차 서류심사 → 시민의견 수렴(온라인) → 2차 현물심사 → 서울시 민디자인위원회 심의 → 최종 결과 발표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26개 품목 총 568점의 <서울 우수공공디자인>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제품은 인증서를 수여받고 2년간 해치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관과 함께 온라인 홍보 및 e-Book브로셔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시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서울시 대다수 공공공간에 활용되면서 관련 업계의 경제활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SGPD-00535, 벤치 (주)예건>_창작모형광고물 대상

기존 인증제품 중에서 2년간의 인증기간이 만료 또는 만료예정인 제품은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재인증 신청을 받아 소정의 심사를 통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선정제품이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확산에 노력하고, 더불어 영세 업체의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고 디자인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 우수한 공공시설물의 꾸준한 보급을 통해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09.03.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만석동 팽이부리마을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보금자리주택 임대공급

인천시에서는 동구 만석동 팽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인천시는 만석동 쪽방촌 팽이부리마을 원주민 재정착과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하여 현지개발사업과 함께 인천시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영구임대 70가구, 국민임대 28가구 등 모두 98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18㎡, 26㎡, 27㎡, 37㎡, 38㎡로 다섯 가지 주택형태이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국자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아동보호시설 퇴소자 등을 대상으로 70가구를 공급한다. 국민임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24가구를 우선 공급하며, 기존 주택 현지개발을 유도 및 지원하고 활성화 하기 위하여 4가구는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택유형	세대수	주택형별(전용면적) 세대수				
		18㎡(5평)	26㎡(8평)	27㎡(8평)	37㎡(10평)	38㎡(10평)
계	94	50	5	27	3	9
임대	영구	70	35	5	21	3
	국민	24	15	0	6	0

보금자리주택 관리를 입주민들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자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작업장 및 공동이용시설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운영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팽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과 공동이용시설 설립 등을 추진하고, 차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정부재정지원, 봉사단체 및 직능단체 재능기부 등을 통하여 기존마을 주택개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3.09.05.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충남도 지적 재조사 종합계획 확정

6일 지적 재조사위원회 개최...2013년도 18개 사업지구 지정도

충남도는 6일 2013년도 제1차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남도 지적 재조사 종합계획'과 '2013년도 18개 사업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된 지적 재조사 종합계획은 도가 2030년까지 추진할 지적 재조사 사업을 중앙의 기본계획에 따라 4대 목표와 12개 실천과제별로 나눠 제시한 장기 세부실행계획이다.

충남도 지적 재조사 종합계획에는 ▲시·군별 연차사업 업무량 및 소요예산 ▲국비확보와 배분계획 ▲사업지구 지정과 대행자 선정기준 마련 ▲고품질 디지털 지적구축 방안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타 SOC 사업 연계 및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전략이 포함됐다.

이번에 개최된 지적 재조사위원회는 또 2013년도 6개 시·군(보령·서산·논산시, 금산·서천·태안군) 18개 사업지구를 지정해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는 1만 2097필지(1511만 4000㎡), 사업비는 19억 1700만 원 규모로, 해당 시군에서 이들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 재조사 사업대행자를 선정하고 지적측량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부정확한 토지경계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 오차 없는 디지털 지적으로 재구축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라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일제에 의해 100년 전 만들어진 지적제도를 청산하고 토지 주권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측량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09.08.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지자체 공공디자인 등록, 지역별로 편차 커

디자인 등록을 높이려면 출원, 심사과정에 전문가 활용해야

2000년대 공공디자인 개발 붐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전용서체, 벤치, 가로등과 같은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나, 그 등록관리는 제각각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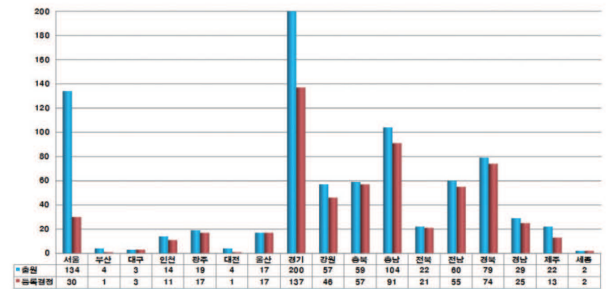
특허청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 기초자치 단체가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공공디자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북도, 전라북도, 울산광역시와 높은 디자인 등록률을 보였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디자인 출원이 많은 반면 등록률이 낮았으며, 부산·대구·대전광역시는 출원 자체가 부진했다.

이와 같이 각 자치단체별 출원 건수 및 등록률에서 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은, 디자인 등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출원 시기를 놓치거나, 심사과정의 미흡한 대응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일부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출원 절차를 진행한 점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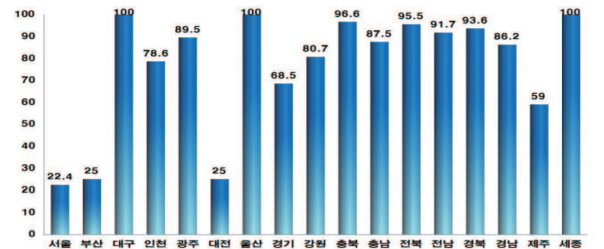
공공디자인 대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지재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바, 디자인 등록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과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 송병주 복합 디자인심사팀장은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출원·심사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보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지자체의 법무담당자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이와는 별도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심사청구제도¹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해 주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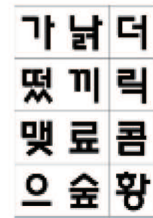
■ 지역별 출원 대비 등록 현황 (기초지자체 포함, 단위: 건)



■ 지역별 등록률 현황 (지역 기초지자체 포함, 단위: %)



■ 충청남도 공주시 / 버스승강장



■ 부산광역시 / 한글자체

2013.09.09.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복합디자인심사팀

광주시, 도시디자인 전문가 초청강연회 개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디자인의 역할과 과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11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디자인의 역할과 과제’(강사: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인본 디자인도시 조성을 위해 광주시가 시민들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마인드 확산을 위해 올들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전문가 초청 행사이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디자인의 의미와 역할, 도시디자인 해외사례 검토와 시사점, 도시디자인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의 일상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성숙한 개념의 도시디자인 전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 함양과 참여, 소통이 중요하며, 디자인 관련 유관기관단체와 기업체 관계자, 시민, 학생 등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2013.09.09.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과

대전시, 원도심에 꽃이 어우러지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꽃도심 조성' 용역 착수보고회

대전시 원도심에 꽃이 어우러지면 어떨까.

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꽃도심 조성사업 시행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업대상지는 중앙로를 비롯하여 이와 연결된 한의약 인쇄거리, 으능정이거리, 대종로, 대전로 등 6개 노선, 8개소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별 계획에 의해 시행되며, 우선 1단계에는 중앙로와 으능정이거리를 대상으로 집중 시행 후 2단계에는 나머지 노선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도심 지역의 거리마다 꽃의 물결이 원도심의 심장을 뛰게 하라'는 모토 하에 중앙로와 연결된 지하철·버스 승강장 주변과 골목재생사업, 중교로,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에 의해 노선별·구역별로 콘셉트를 특성화하여 관광 자원화 하고 아울러, 화훼 관련 산업의 붐 조성으

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꽃도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사업 준공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며, 상인연합회 및 개인 상점가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민·관 협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사업을 통해 으능정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정서적인 도움과 상호 협동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내 상가' 앞 화분 지역 관리 등 다양한 방식의 자율적인 참여로 민·관 협치의 모범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꽃도심 조성 T/F팀 관련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화훼장식 및 꽃 축제 개최방안 등에 관하여 전문가 특강도 함께 실시한다.

2013.09.12.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경북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나서

올해 760억 원 들여 1천520동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 계획

경상북도는 올해 총 760억 원 들여 1천520동의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 개량계획을 세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지난 1976년부터 시작해오고 있으며, 지낸 해까지 사업비 8천863억 원을 들여 9만 7천451동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했다.

지난해는 동당 4천만 원 융자 지원으로 1천 100동의 주택을 개량했으나, 올해는 융자지원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올려 융자 지원하고, 일반지역의 주택 건축면적 100㎡에서 150㎡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조건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에 연리 3%로, 대출한도는 신(개)축이 5천만 원, 민집 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한 부분개량은 2천500만 원을 융자해준다.

융자대상자는 도내 농어촌지역(읍·면 지역과 시에 소재하는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과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등이다.

확정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주택개량에 따른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 주택 개량을 완료하고 해당 시·군의 농협은행에 융자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 김시일 건축디자인과장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융자금을 상향지원하고, 기존 3% 연리를 2% 연리로 낮추도록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개량된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의 주택

2013.09.13.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범죄 막는 디자인 '셉테드' 확산 도모

범죄 사각지대 디자인 설계로 예방 해소 기대

경기도가 '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셉테드)' 확산을 위해 각 시군 도시개발 및 건축 분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 13여 명이 참여했으며 경기도가 최근 개발한 '취약 지역 범죄예방 매뉴얼'을 소개하고 적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경기도가 개발한 매뉴얼에는 생활 주변에서 범죄 심리를 차단할 수 있는 표준가이드라인, 공간별 디자인 매뉴얼, 범죄예방 체크리스트 활용방안 등을 담고 있다.

도는 앞으로 각 시군이 관련 조례 등을 마련해 셉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셉테드 매뉴얼이 적용된 곳에는 '경기도지사 안전마을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제4회 충남도 디자인 인증제 심사 완료

전국 34개 업체 149점 출품 경한...41건 우수 디자인 선정

충남도는 문예회관에서 제9회 경관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회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심사'를 마쳤다.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도는 도내 우수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발을 장려하고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여 올해 4회째를 맞고 있으며,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공고와 응모를 거쳐 교통시설 89건, 편의시설 44건, 공급시설 1건, 정보매체 3건, 기타시설 12건 등 총 149건이 출품됐다.

도는 이 날 경관디자인위원회를 통해 도내 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여, 출품작 149건 중의 41건의 우수 디자인 제품을 선정했다.

이번 심사에 우수 디자인 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제품홍보를 위해 충남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공주 고마복합센터에서 개최되는 '2013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10.2~6일)에서 시상 및 전시된다.

도는 도 홈페이지에 인증제품 목록을 게시하고 도내 디자인 관련 각종 사업현장에서 우선 적용토록 제품홍보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도내 관련 업체의 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와 인터넷 접수, 심사절차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인증은 관련 디자인 업계의 관심과 우수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3.09.17.
충청남도청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2013 그린홈 으뜸아파트' 3개 단지 선정

신설개선키금 3천만 원 지원...아파트 공동체문화 활성화 기대

충청남도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 간의 화합과 공동체의 문화 조성, 에너지절약의 실천, 투명하고 깨끗한 공동주택 관리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그린홈 으뜸아파트'선정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그린홈 으뜸아파트'로는 천안 불당동 대동다숲, 아산 풍기동 일하이빌, 서산 현진에버빌 등 3개의 단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총 13개 단지의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관리 등 아파트와 관련된 기관, 단체, 학계 등 민간전문가 9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단은 아파트의 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노력, 에너지 절약 실천 등에 대해 1차 서면평가, 2차 현지 확인평가를 통해 최종 3개 단지를 엄선했으며, 특히 이번 평가는 평가항목을 늘리고 단위점수를 세분화 하는 등 공정성, 객관성 유지와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평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된 3개 단지는 올해 대폭 개선한 평가기준인 시설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주민 화합행사 개최, 에너지 소비절약, 친환경관리 등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어 충남도 최고의 '그린홈 으뜸아파트'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으며, 또한, '그린홈 으뜸아파트'동판과 시설개설자금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충청남도청은 앞으로 평가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지평가 후 서면 평가'등을 포함한 보완·개방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며, 충청남도청 읍·북합과제인 '도시형 마을(아파트)공동체 회복사업'과도 연계해 주민주도의 자치의식 배양 및 화합 공동체가 잘 형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13.09.23.
충청남도청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서울시,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1호 마포 연남동 새 단장

서울시가 전면철거 방식 대신 저층 주거지를 보전하면서 정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첫 시험사례로 추진한 마포구 연남동 239-1번지 일대(8만 2,900㎡, 1,325세대)가 새 단장을 마쳤다.

단독주택 재건축 해제 지역인 연남동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돌입해 주민커뮤니티센터(마을관리사무소, 북 카페, 어르신 나눔터, 공동육아방시설 등) 건립, 전선 지중화 사업, 가로환경개선, CCTV 등 보완·방범 시설, 그린파킹주차장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연남동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계획수립 시부터 주민대

표, 전문가 및 시·구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주민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종전의 관 주도방식(하향식, Top-Down)이 아닌 주민들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마을의 개선방향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 연남동 운영위원회는 주거환경관리 시범사업완공을 기념해 주민커뮤니티센터 앞마당과 길공원길에서 '2013 연남동 다시 살다'라는 주제로 마을축제를 개최했다.

주민운영위원회에서는 주민커뮤니티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주민소통 및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북 카페 등 수익사업 운영을 통해 주민 스스로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립구조를 형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는 물론 사회적·경제적 재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마포구 연남동을 시작으로 지역색이 살아있고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현재 22개 구역 추진 중)이며, 특히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다양한 맞춤형 마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정비 전



■ 정비 후

2013. 09. 25.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은평구 '산새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마을공동체 더욱 탄력받는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사랑방) 조성, 마을 쉼터 조성 및
가로환경개선, CCTV 설치 등

〈은평구 산새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가결〉 서울시는 9월 25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대 산새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안)에 대하여 심의 가결하였다.

‘산새마을’은 2011년부터 두꺼비하우징 시범사업 마을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민주도의 주거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형성, 경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서, 1월부터 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구역명	위 치	규모 (면적/동수)	용도지역
산새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사동 237번지 일대	45,756.2㎡ /352동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노후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개발방식 대신 마을의 역사성·환경성 등을 보존하면서 공공에서 기반시설을 정비·설치하고, 개인이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개·보수)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방식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발전 방향을 구상하면 서울시와 전문가 집단이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지속적인 주민워크숍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마을 맞춤형 계획 수립〉시는 은평구 산새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 9개월간 주민대표, 전문가, 자치구, 서울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을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주민워크숍을 실시하였다.

〈관계부서 협업을 통한 지원사업 적용으로 통합적인 마을계획 수립〉신사동 산새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요 공공사업으로 『안전한 마을만들기』, 『가족같은 이웃만들기』, 『쾌적한 마을 만들기』 3개 테마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는 계단 및 난간 등 기반시설 정비 및 가로환경개선, 보안등 및 CCTV 설치 등이며, 가족같은 이웃 만들기로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사랑방) 조성, 마을 쉼터 및 산책로 조성, 마을지도 및 안내표지판 설치, 쾌적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는 그린존 조성사업 등이 있다.

경사가 급하고 노후되어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가로환경개선 사업 등을 수행한다. 또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자립성 증대를 위해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확보하여 기존의 다양한 마을활동(마을 지킴이, 솜씨공방 등)을 지원하고,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협정 체결,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을 유지관리〉시는 향후 착공 전까지 주민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협정을 체결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며, 공공사업은 은평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11월 공사 착공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금년에 6번째로 심의 가결

된 『산새마을』은 기존의 다양한 마을활동이 있던 마을로 이번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주민공동체 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새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위치도



■ 산새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마스터플랜

2013.9.26.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대전시 도시계획 심의, 발라지고 투명해진다

심의 과정 공정·투명성 확보로 행정의 신뢰성 높이는 계기될 것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도시계획심의회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운영에 따른 부정부패 유발방지와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심의 처리기간이 기존 45일에서 30일로 15일을 대폭 단축함에 따라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사례가 줄어들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이번에 개정한 위원회 운영세칙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처리기한 단축 (45일→30일 이내) △매월 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개최 △위원회 관련 행정정보 휴대폰 알림 서비스 시행 등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 위촉 시 추천방식에서 공모방식 도입 △위원의 연임 제한(2번까지 연임 허용) △심의의안건과 관련, 위원회 제척·회피사유 구체적 명시로 운영상 공정성 저해를 가져온 위원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 등 규정이 포함되었다.

대전시는 “그동안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대폭 해소하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하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에 관한 운영세칙 개정사항 지난 8월 확대 간부회의 시 대전시장이 도시주택국의 시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2013.09.26.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

경기도, GRI와 도시주택분야 현안 해결책 모색

재정악화시대의 도시 활성화 재원확보 방안 등 8개 현안 토론

경기도는 27일 이분기 도시주택실장 주제로 경기개발연구원(도시주택연구실)과 미래지향적 공간정책 개발 및 주거복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규제개선과 비수도권과의 상생발전방안, 성장관리방안 제도 활성화 및 난개발 방지방안, 재정악화시대의 도시 활성화 재원확보 방안 등의 8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과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가 도시주택 및 수도권 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GRI는 토지이용 합리화, 주택·부동산, 도시성장·주요현안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정하고 3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도시주택현안 공유와 상호 지원역할을 높이기로 했다.

분과위원회	주요 논의 현안사항	구성(안)
토지이용 합리화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상생발전 방안	• 지역정책과장, 도시 주택과장 • 도시정책과장
	GB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단속제도 발전방안	
	성장관리방안 제도 활성화 및 난개발 방지방안 등	
주택·부동산	공동주택의 공정한 회계처리 등 관리체계 개선방안	• 도시주택과장, 주택 정책과장 •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
	공사중단 방지건축물 효율적 정비 방안 등	
도시성장·활성화	공공택지내 산업시설용지 입지 허용방안	• 공공택지과장, 도시 기획과장 • 신도시개발과장, 도시 재생과장
	재정악화시대의 도시활성화 재원 확보 방안	
	도시재생전략 및 자원방안 등	

2013.9.26.
경기도 지역정책과 지역정책팀

보금자리 공공분양 '25% 이상→15% 이하'로 줄여

9.30.~11.8.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축소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 30.부터 40일간(9.30. ~ 11.8.)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에서 15%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다.

구 분	주택 유형	주택비율	
		현 행	개 정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지구전체주택의 35% 이상	(현행과 같음)
	분양주택	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	지구전체주택의 15% 이하

* 보금자리주택특별법(2조): 보금자리주택(재정·기금지원)비율 50% 이상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13.4.1.) 및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13.7.24.)의 후속조치로서, 그간 민간분양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말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조기준공 및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택시장 정상화와 중장기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3.09.3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도시개발 선도사업 본격 추진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 1구역

인천시는 남구 주안 2·4동 일원(127만 4,169㎡)에 기반시설 확충과 구도심 기능을 회복시키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2008. 5)로 지정하였다. 그동안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과 주민설명회 및 공람, 구 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주민 등 각 계각층이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 구역별 계획 수립(도시개발사업 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10구역, 도시정비사업 5구역 총 16개 구역)으로 인천의 대표적인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2010. 5)을 하였으나, 글로벌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와 맞물려 사업진행이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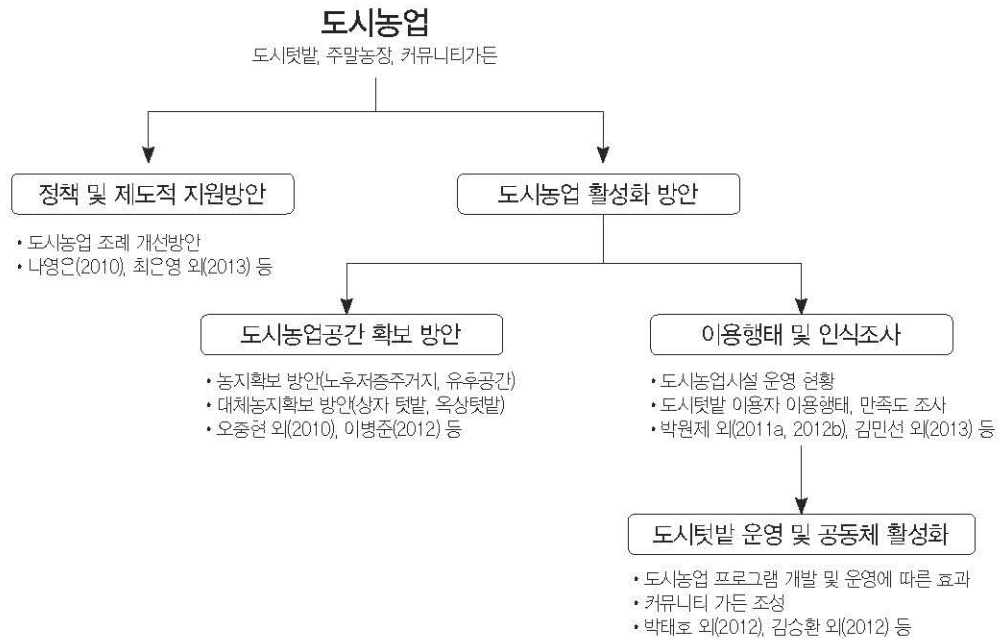
이에 인천시는 도시개발 1구역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011년 5월 남구청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주변 개발의 촉진과 앵커시설(Anchor facility)을 갖춘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위해 공모를 시행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민간사업자(에스엠씨)를 선정 하였다. 9월 30일 고시된 실시계획인가 내용에 따르면 개발면적은 24,440㎡로 800병상(45층 이하)을 수용할 수 있는 최첨단 의료시설과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인천지하철 2호선 가창 구 시민회관 사거리역과 직접 연계되어 이용객의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구역 내 주안초등학교는 우선적으로 2015년까지 인근 지역(미추 5-1구역)으로 이전 재배치하고, 입체 복합건물(의료시설, 업무시설)을 2015년 7월에 착공하여 2017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본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시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의 패러다임(Paradigm)의 발전모델 변화와 다양한 시너지 효과 등으로 주변 정비구역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되어 창조적 발전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 도시개발1구역 배치도 및 조감도

2013.09.30.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 도시농업 연구 흐름도

도시농업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관련 연구

도시농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등에서 먼저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다. 서울시의 경우 200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광명시(2009년), 수원시, 안양시, 파주시(이상 2010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이상 2011년) 등이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이밖에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도시농업의 개념과 목적이 다양하게 정의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공간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경작공간을 마련하고 그 사용이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정책 방안을 제시한 연구(나영은, 2010)가 이루어졌으며, 2012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도시농업의 제도적인 접근을 위하여 공간적 입지 기준 설정방안을 마련한 연구(심재홍외, 2012),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제도적 현황을 살펴보고 조례들의 개선방안을 마련한 연구(최은영외, 2013) 등이 수행되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정책 방안

나영은 (2010)

- 도시농업은 주로 도시근교의 주말농장에서 행하던 것이 점차 도시 안으로 들어와 도시농업 활성화를 교구하고 있음. 도심지에서 사용가능한 공간들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여 사용 가능한 경작공간과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p307)
-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촉진, 자연환경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법들이 제정되었으나, 도시농업 활성화를 지원하기에는 미흡함. 정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6조)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해야 함. 이 법은 도시에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이 잘 접목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마련해서 에너지 자립을 통한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어야 함.(p307)
- 한국형 도시농업 모델 개발 필요. 주거용 아파트가 많다는 우리나라 도시경관의 특성을 감안해, 아파트 베란다에 적합한 상자텃밭모델의 개발이 필요한. 또한 도시농업 공간을 확보하는 유인책 및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적합한 작물 선택 및 재배방법 등을 포함한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해야 함.(p307)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선방안

최은영 · 김세웅 (2013)

- 도시농업관련 조례명은 크게 도시농업, 옥상녹화, 도시텃밭, 주말영농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도시농업을 다루고 있는 소관부서는 각 지자체별로 서로 상이해 담당업무의 내용과 위계 및 성격 등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함. (p362, 364)
- 서울시 각 구의 조례 운용현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 조례상에는 명시되어있지만 실제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음. 그 이유는 첫째, 조례상 인센티브 조항은 도시농업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조항이지만 아직 실행한 구는 하나도 없었으며, 둘째, 구에서 도시농업교육 신청자를 받아 운영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가 저조하여 실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음.(p364)
- 광역지자체 조례의 내용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크게 계획, 위원회, 지원, 관리, 시설, 홍보로 나눌 수 있었으며 이중 위원회와 지원부분이 가장 많음. 조례 내용의 분석 결과, 각 지역들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내용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조례제정 시 각 지역의 현황 및 특색이 잘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의 도시계획 등에 반영하는 조항이나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농업과 도시의 교류·협력 부분은 고무적인 조항으로 꼽힐 수 있음.(p362, p364)

도시농업공간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도시농지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특별·광역시 지역의 도시농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농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인식하고 도시농업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관련 연구로는 도시지역 내 농지를 보전하고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거나(이병준, 2012), 부족한 농지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연구(오충현 외, 2010; ; 김진환, 2010, 이정민외, 2011; 하창호외, 2012), 도시농업공원의 발전가능성을 논의한 연구(윤희정외, 2012) 등이 이루어졌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지 확보방안 연구

이병준 (2012)

- 도시지역 내 '도시농업지구' 신설 검토와, 총량에 의한 도시농지 관리 및 도시계획 시설화가 필요한, 우량 도시농지의 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 제고와 상한금액(50,000원/㎡) 상향을 통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를 강화해야 함.(p119)
- 일본의 시민농원처럼 도시농업농장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민영도시농업 농장에 있어서 농지의 임대 및 사용대(使用賃)를 가능케 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됨. 도시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로 토지소유자의 농지보전 의지를 제고하고, 개발권양도제 시행으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손실보상을 강화할 필요 있음.(p119)
- 자투리땅, 공한지, 유헴지 등에 있어서 도시농업 가능지역에 대한 조사 및 DB화가 필요하며 랜드쉐어(Landshare) 방식을 적용하여 도시농지 활용을 제고하여야 함.(p119)

도심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생활농업 추진실태에 관한 연구

김진환 (2010)

- ❶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경작 가능한 공간에 대해 정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단기간에 개발 계획이 없는 공간이 경관적·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조례에 반영하는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p103)
- ❷ 신규단지 조성 시 유휴공간으로 방치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을 도시생활농업을 위한 별도의 농업용지로 조성하거나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공시설물 옥상 및 정원에 공동 텃밭을 조성하는 등의 계획 수립시에 도시생활농업을 위한 공간 활용 방안을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함.(p103)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상자텃밭 확대 방안

오충현·장진·이숙미·이강오·이주연
(2010)

- ❶ '생활체험형 도시녹화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은 도시내 자투리공간, 서울시와 자치구의 옥상녹화 지원범위 내에는 들지 않은 작은 옥상, 주택가 골목, 어린이집 마당 등을 녹화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서울시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p153)
- ❷ 채소 외에 꽃을 감상하거나 사계절을 계속 가꿀 수 있는 초화류도 보급 수종에 포함하여 상자텃밭의 재배 수종의 다양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보급되는 흙과 모종의 품질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함.(p156)
- ❸ 상자텃밭 관리 매뉴얼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상자텃밭 작물 재배 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병충해 방제, 흙소독하기, 웃거름주기 등 실질적이고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함. 지속적인 상자텃밭 가꾸기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며 관리 지지체 및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배 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p156)

도시공원 진화상의 비판적 고찰을 통한 도시농업공원의 발전가능성

윤희정·조미경 (2012)

- ❶ 도시농업공원은 단순히 생산하는 공간을 구획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 생산과 소비의 공존, 공원의 경제성 등 거시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 잉여농산물의 거래를 위한 직거래장터나 거리시장, 퇴비장, 농업부산물 처리 장, 교육장, 체험장, 신재생에너지 활용공간 등의 도입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p88)

도시농업 이용행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단지 내 도시농업 동향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민선 · 김세웅 (2013)

- 농산물은 도시의 일반 조경식물과 상이하므로, 기존 녹지와 배치문제, 배수체계, 관수체계, 멀칭시스템, 적절한 작물 토심, 양질의 토양 확보, 적절한 단위필지 구분, 영양분의 공급, 해충관리, 계절적 편차 극복, 생산을 위한 기초공간 도입(ex: 농업창고) 등에 대한 근본적 고려가 필요함.(p88)
- 각종 유실수, 보리나 밀, 양배추 등처럼 관상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다양한 농산물의 도입과 적용으로 도시 내 농업경관자원이자 복합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p88)

2012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도시농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농업의 보급 및 도시텃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농업박람회나 도시농업축제 등을 개최하면서 도시농업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알리고 있으며, 건설사의 경우 아파트 조경계획 및 커뮤니티시설 계획에 공용 텃밭을 조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텃밭 이용현황과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이용자들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도시농업이 장기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농업 이용행태를 분석한 연구(김민선외, 2013; 남태호외, 2013), 도시텃밭 이용자의 인식조사를 실시한 연구(임미정외, 2011), 도시민과 공무원의 도시농업 인식을 비교한 연구(박원제외, 2012a; 2013b), 개발사업 지구 내 도시농장 조성과 그에 따른 임대금액을 추정한 연구(임주호외, 2012) 등이 이루어졌다.

- 공동주택단지 내 자체 커뮤니티를 통해 조성된 텃밭의 경우, 부녀회나 경로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거나 소수의 주부들만 경작활동에 참여하여 커뮤니티 활성화로서의 효과가 떨어졌음.(p201)
- 지자체 공모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조성된 단지의 경우 재정적 지원 이외 참여자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기 때문에 커뮤니티 형성 측면에서 주민들 간의 소통의 기회가 많고 호응도 대체로 좋음. 하지만 주민공동 이용시설 부족

등 시설 측면에서 미흡하며, 관리 전담자가 따로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관리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직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음.(p201, 202)

- 건설사의 신규주택단지 건설에 따라 조성된 단지의 경우 입주자회나 부녀회의 활동보다는 텃밭을 분양받은 참여자들 간의 운영위원회가 조성되었으며, 관리소의 역할이 중요한 시설측면에서 휴게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되어있고 일조 환경과 배수로확보 등의 기능적인 면에서 우수하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족하여 커뮤니티 측면에서 부족한 모습이 나타남.(p201, 202)

도시텃밭 분포 특성 및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남태호·정태열·김수로 (2013)

- 텃밭은 주거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거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텃밭을 이용하는 동기는 '소일거리',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 순으로 나타남. 텃밭을 주로 유희지 개간, 도로·하천변 토지, 개인 토지 무상 경작권 획득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며, 주말농장을 분양받거나 개인 토지를 임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을 위한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와 공급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p37, 38)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도시텃밭 이용자의 인식조사

임미정·이은희 (2011)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텃밭 12개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도시텃밭 이용현황은 처음이용이 37.1%로 가장 높게, 2년째 이용 중에 있다는 답변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방문 시 활용하는 교통수단과 소요시간은 자가용 57%, 도보 27.6% 순으로 나타남. 도시텃밭을 이용하는 요일은 주말 66.1%, 평일 25.3%. 방문횟수는 주 1회가 38.5%, 주 2~3회가 38.0%로 나타남.(p36)
- 단순히 도시텃밭만을 조성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텃밭 조성 시 휴게공간 및 교류공간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자들이 편히 찾을 수 있는 정원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p38)

도시민과 공무원의 도시농업 인식 비교

박원제·구본학·박미옥·권효진 (2011)

- 도시농업의 유형별 설문조사에서 도시민은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등의 공원, 공무원은 건물의 옥상을 향후 도시농업 활용공간으로서 가장 선호. 공공녹지 일부를 텃밭으로 조성해 임대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도시민과 공무원 모두 대다수가 찬성의 입장을 보였으나, 공무원 중 일부는 녹지훼손과 공공성 상실의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임.(p144)
-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실행에 있어서는 도시민과 공무원 모두 공통적으로 예산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선택.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에 대해서는 도시민의 경우, 텃밭이나 농업공원 등 녹색공간 확충이 8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의 경우 도시농업 인프라구축 44%, 텃밭이나 공원농업 등 녹색공간 확충이 34%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p114)
- 국가적 차원에서 도심 내 공간을 고려하여 경작공간을 마련하고, 그 사용이 지속되도록 제도적 차원 및 기술적 차원에서 뒷받침해주어야 함. 도시농업에 참여하지 않는 도시민의 흥미를 일으킬만한 프로모션 활동이 수반되어야함.(p145)

신도시 내 도시농업 도입에 대한 거주자 지불의사금액 추정

임주호·이경환·윤인숙·윤은주 (2012)

-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이용의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6%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일부를 도시농장으로 조성하여 임대할 경우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 이는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텃밭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잠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향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농업을 도입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p321)
- 도시농장 임대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1년에 한 구좌(16.5㎡ 기준)당 임대료로 약 23만 6천원을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재 주말농장의 텃밭임대료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개발사업지구 내 도시텃밭이 조성될 경우 주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이 기존 주말농장의 임대료 수준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줌.(p321)

도시농업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관련 연구

최근 도시농업은 텃밭을 만들어 환경을 개선하고, 신선한 농작물을 생산하는 등의 가치 외에 참여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농사 과정은 텃밭에서 이웃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제공하고 이웃 간의 만남은 농사정보를 교류하거나 공동작업을 함께 하는 등 공동체 문화를 형성·회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도시농업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행사 등을 제공하여 도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관련 연구로는 도시텃밭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체의식 간의 관계를 파악하거나(박태호외, 2012), 도시농업교육 프로그램 및 참가자들의 성향을 분석한 연구(임휘룡외, 2013), 도시농업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장보경외, 2011a, 2012b)등이 이루어졌다. 2010년부터는 도시농업에 커뮤니티 가든 개념이 소개·적용되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커뮤니티 가든을 조성한 사례를 소개하거나(김승환외, 2012; 김미향외, 2010) 커뮤니티 가든의 사회적 이득과 지역내 기여 측면을 살펴본 연구(박은지외, 2011), 주민참여 커뮤니티가든 계획과정을 개발한 연구(박은지외, 2011) 등이 수행되었다.

도시텃밭 운영 프로그램이 참여자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박태호·이인성 (2012)

- 관리조직과 운영프로그램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텃밭활동(이용빈도, 체류시간, 이동시간)과 텃밭 환경의 평가(접근성,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에 있어서는 텃밭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전문 관리조직이 있고 지속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텃밭이 그렇지 않은 텃밭에 비해 공동체의식이 높게 나타남.(p124)
- 이동시간이 길면 텃밭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게 되며, 참여인원이 많은 가족단위 참여자들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어 프로그램 참여와 교제활동이 떨어짐. 이는, 텃밭프로그램이 1인 가구, 독거노인 등 사회적 접촉의 기회가 적은 계층의 사회활동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p125)
-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시텃밭 관리조직이 반드시 필요. 정부조직만으로는 바람직한 텃밭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와 민간단체, 시민이 서로 공조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농업 거버넌스 시스템이 연구되고 정착되어야함.(p128)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

임희룡 · 구본학 (2013)

- 도시농업 교육 참가자와 도시농업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시농업 역할에 대한 평가로 도시농업 참가자는 유기농 먹거리 제공, 아이들의 교육의 장 제공, 노인들의 여가활동의 장 제공 순으로 꼽았으나, 일반인은 노인들의 여가활동의 장 제공, 아이들의 교육의 장 제공, 농촌에 대한 향수 제공 순으로 꼽음. 특히 도시 농업 교육 참가자는 유기농 먹거리 제공을 1순위로 꼽았으나, 일반인은 6순위로 꼽음. 또한, 일반인은 농촌에 대한 향수 제공을 3순위로 꼽았으나, 도시농업 교육 참가자는 10순위로 꼽음.(p121)
- 도시농업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은 도시농업을 농촌농업의 연장으로 인식하며 도시농업 교육에서 귀농귀촌 교육이 포함된다고 인식하는 반면, 도시농업 교육 참가자들은 도시농업이 도시에서 유기농 먹거리를 생산하는 여가활동이자 생태적인 사고방식을 교육받는 새로운 여가의 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남.(p122)
- 점차 농촌경험이 없는 도시민들이 증가하고, 도시농업 실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작 지식은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충족될 수밖에 없으므로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p122)

마을만들기에 있어 공유공간으로서 텃밭을 활용한 커뮤니티 가든의 가능성과 일상적 경관형성의 효과

김미향 · 조동범 (2010)

-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2년간 주민들과 함께 마을 내 소공지를 텃밭이 있는 커뮤니티 가든으로 조성한 결과 텃밭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매일 방문하게 되어 이용자들 간의 자연스런 교류가 유발됨.(p30, 31)
- 대상지내 텃밭이용자들은 대부분 60~70대 노년층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편으로 텃밭을 경영. 매일 2~5회 이곳을 방문하여 10~30분간 머무르며 텃밭관리와 함께 이웃들과 모종 및 경작물을 교환하고 활발한 교류를 유지하는 등 노인세대들의 중요한 활동의 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민 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함.(p31)
- 사유지의 토지주가 안전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요구되며, 지자체별로 공한지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관리되지 못하는 소공지를 커뮤니티 가든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선행될 필요 있음.(p32)

도시 내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가든 계획의 초기단계에 관한 연구

박은지·이연숙(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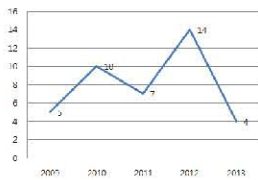
- ❶ 커뮤니티 가든 계획 시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 대표, 리더, 핵심 단체를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며, 계획의 진행에 따라 이들로부터 차츰 주민 전체에게 역할을 이행시킴으로써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함.(p139)
- ❷ 커뮤니티 가든 활용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과의 연계가 필요. 지역 내 공공기관, 대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이해관계를 이루고 다양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커뮤니티 가든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음.(p139)
- ❸ 커뮤니티 가든 활용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타분야와의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동시설, 로봇산업, 관광 산업, 복지 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커뮤니티 가든만의 기능 외에 주민의 요구에 따라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공간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음.(p139)

커뮤니티 가든 조성을 위한 실험 연구

김승환·윤성웅·차민중·유해진·
조지영·김운선 (2012)

- ❶ 외부공간 환경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마련 등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함. 이러한 관점에서 파트너십에 의해 비용을 마련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복지관을 대상으로 하여 커뮤니티 가든을 조성하는 시도는 복지관 외부 환경 개선에 있어서 대단히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옥상에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중, 방수 등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함.(p35)

[도시농업] 키워드 분석리포트



1. 최근 5년간 국내 발표 논문 수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4
논문수	0	5	10	7	14	4
전년대비 성장률	-	300%	100%	-30%	100%	-71%

2. 주요 저널

순위	저널명	전체 논문 수
1	한국조경학회 논문집	8
2	조경연구(한국조경학회지)	3
3	한국도시설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
4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
5	한국조경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
6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
7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2

3. 국내 주요 연구자

[유해진] [이슬비] [김세용] [이인성] [박은지] [김용근] [김윤선] [박태호]
 [신경호] [조지영] [권용일] [이연숙] [박미옥] [구본학] [박원제] [김승환]
 [권효진] [이병준] [김수봉] [김용수] [이인환] [장보경] [이호정] [김윤선]
 [황정임] [최윤지] [안창현] [전인철] [이영민] [조지영] [안창현] [윤성용]

4. 주요 관련 키워드

[옥상텃밭] [Community Garden] [텃밭] [옥상텃밭] [공동주택] [도시텃밭]
 [urban agriculture] [도시농업] [옥상녹화] [Urban Farming] [주말농장]
 [농촌체험관광] [Aging in Place] [커뮤니티 가든 계획] [주민참여] [Weekend Farm]
 [도시농사] [도시농장] [커뮤니티 가든] [도시텃밭 프로그램] [Vegetable Garden] [로컬보이]

[도시농업] 관련 주요 논문리스트

* 검색 키워드 : 도시농업, 도시텃밭, 커뮤니티 가든, 옥상녹화

* 검색 사이트 : www.auric.co.kr, www.ndsl.kr

제 목	저 자	수 록 지	발 행 일	권 호
1 농촌 활성화사업 유형에 관한 연구	이을규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200610	v.8 n.3
2 베란다 재배에 적합한 채소작물 및 관리방법 선발	문지혜 ; 이상규 ; 장문아 ; 이우문 ; 이지원 ; 김승유 ; 박현준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2007	Vol. 16, No. 4,
3 텃밭을 이용한 도시농업의 활성화방안	강기남 ; 이종근 ; 김기환 ; 이만형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논문집	200706	v.26 n.1
4 도시농업 육성의 정책적 함의	정동현	韓國産業經濟學會	2009	Vol. 22, No. 2,
5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임효선 ; 조원범 ; 홍광표	한국조경학회	2009	2009 v.10
6 도시농업 올바른 이해로 육성에 나서야	신동현	한국작물보호협회	2009	
7 가족친화 지역사회와 가정의 공동체적 삶 회복을 위한 도시농업	최재순 ; 김진덕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09	2009 v.11
8 복수 거주 개념에서 살펴본 체재형 주말농장 클리인가르텐의 실태와 과제	손혜미 ; 최정민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04	2009 v.1(총계)
9 도시농업 활동 유형화 연구	황정임 ; 최은지 ; 장보경 ; 이상영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10	Vol. 21, No. 4,
10 에너지 자립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정책 방안	나영은	한국환경농학회	2010	Vol. 29, No. 3,
11 도시농업 연구 및 실천방안	정명일 ; 김광진 ; 유은하 ; 정순진 ; 한승원 ; 이동우 ; 송정섭	한국원예학회	2010	Vol. 28, No. 1,
12 도시농업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용 식물 종묘의 유통 기술개발	허복구 ; 박윤점 ; 오대민 ; 박종수 ; 윤숙영 ; 조지용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	2010	Vol. 13, No. 4,
17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상자텃밭 확대 방안	오충현 ; 장진 ; 이숙미 ; 이강오 ; 이주연	한국조경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003	

제 목	저 자	수 록 지	발 행 일	권 호
18 커뮤니티가든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유해진 ; 김승환 ; 손용욱 ; 조지영 ; 김운선	한국조경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003	
16 마을만들기에 있어 공유공간으로서 텃밭을 활용한 커뮤니티 가든의 가능성과 일상적 경관형성의 효과	김미향 ; 조동범	한국조경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010	
15 지속가능 건강사회를 지향하는 커뮤니티 가든 인접형 치매노인주거 계획연구	임수현 ; 이연숙 ; 장미선 ; 장계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11	통권19호
13 도심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생활농업 추진실태에 관한 연구	김진환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12	v.2010 n.01
14 도시재생적 차원에서 텃밭의 도입과 제도화방안에 관한 연구 -독일 클라인가르텐 사례 와 비교를 중심으로	황지욱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012	v.22 n.4
19 도시농업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장보경 ; 최문지 ; 황정임	한국농촌지도학회	2011	Vol. 18, No. 3,
25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도시텃밭 이용자의 인식조사	임미정 ; 이은희	한국조경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103	
24 도시 내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가든 계획의 초기단계에 관한 연구	박은지 ; 이연숙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04	2011 v.1(춘계)
23 도시민과 공무원의 도시농업 인식 비교	박원제 ; 구분학 ; 박미옥 ; 권효진	한국조경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110	
21 주민참여 커뮤니티가든 계획과정 연구	박은지 ; 이연숙 ; 안청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11	통권21호
22 공동주택의 옥상텃밭을 적용한 옥상녹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정민 ; 한동훈 ; 함제범 ; 신경호 ; 김창덕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111	
20 커뮤니티가든의 사회적 자본 관점 특성 연구	박은지 ; 이연숙 ; 안청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1112	v.11 n.6(통권 52호)
26 창조적 산업융합 개념을 적용한 도시농업의 장소적 가치에 대한 고찰	이석환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	Vol. 13, No. 2,
27 도시공원 진화상의 비판적 고찰을 통한 도시농업공원의 발전 가능성	윤희정 ; 조미경	한국농촌계획학회	2012	Vol. 18, No. 2,
28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연구 -경기도농업기술원 도시농업지도자 과정을 중심으로-	장보경 ; 최문지 ; 조정주	한국농촌지도학회	2012	Vol. 19, No. 2,
29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토양조건별 초본식물의 생육특성	박원제 ; 한경환 ; 권순효 ; 박미옥 ; 구분학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2012	Vol. 15, No. 2,

제 목	저 자	수 록 지	발 행 일	권 호
30 도시농업의 도시열섬현상 저감효과에 대한 계량화 평가연구	엄기철 ; 정필균 ; 박소현 ; 유성병 ; 김태원	한국도양비료학회	2012	Vol. 45, No. 5,
38 도시재생을 위한 노후저층주거지 내 텃밭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하창호 ; 김현숙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04	
39 커뮤니티 가든 조성을 위한 실험 연구	김승환 ; 윤성용 ; 치민준 ; 유해진 ; 조지영 ; 김윤선	조경연구(한국조경학회지)	201204	v.40 n.2
37 중소도시의 기존 대체농지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김용수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201205	v.14 n.2
36 도시농업인과 공무원의 도시농업 인식 비교,평가	박원제 ; 구본학 ; 박미옥 ; 권효진	조경연구(한국조경학회지)	201208	v.40 n.4
33 우리나라 도시농사의 도시계획적 접근을 위한 공간적 입지기준 설정방안	심재홍 ; 이원영	국토계획	201210	v.47 n.5(통권 193호)
34 신도시 내 도시농업 도입에 대한 거주자 지불의사금액 추정	임주호 ; 이경환 ; 윤인숙 ; 윤은주	LHI Journal	201210	v.3 n.4
35 도시텃밭 운영 프로그램이 참여자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박태호 ; 이인성	조경연구(한국조경학회지)	201210	v.40 n.5
32 단지 내 조경요소로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작물지표 도출 및 생태면적을 개선방안	강현정 ; 김세용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211	2012 v.2(추계)
3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지 확보방안 연구	이병준	도시행정학회(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201212	v.25 n.4
42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효과 연구	임휘룡 ; 구본학	한국조경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303	
43 도시텃밭 분포 특성 및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남태호 ; 정태열 ; 김수로	한국조경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303	
40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선방안	최은영 ; 김세용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04	
41 공동주택단지 내 도시농업 동향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민선 ; 김세용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04	

APU Story #4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설계 : 한중률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연면적 : 17,113㎡
건축면적 : 13,664㎡
규모 : 지상 3층, 지하 3층

사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등나무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서울 동북부지역에 문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미술·커뮤니티 중심의 친환경 미술관으로 지난 24일에 개관했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관람객의 접근성을 최대화하고 디자인과 시공의 완성도가 우수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2013 서울시 건축상'에서 <대상>을 수상해 건축적으로도 훌륭함을 인정받았다.

미술관의 디자인 또한, 수락산과 불암산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느낄 수 있는 언덕 형태로 디자인되어 사람과 자연, 예술을 이어주는 또 다른 문화소통의 공간을 형성, 공원에서 시작되는 녹지가 자연스럽게 미술관 안으로 흘러들어와 한편의 풍경화를 연출한다.

야외조각공원은 곳곳에 전시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자 지역주민들을 위한 쉼터의 역할을 하며, 커뮤니티 전시실은 북서울미술관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상생의 공간으로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전문인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과 호흡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9월 24일 개관을 맞이하여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3,500여 점 중 주제별, 시기별, 미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 140여 점을 공개한다. 개관전은 <장면의 재구성#1 - SCENES vs SCENES>展, <서울풍경 - SEOULscape>展, <아이 러브 서울 - I ♥ SEOUL>展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의 정체성을 알리고 우리 미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자 한다. / 글·편집 이경신(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도시 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 건축자산 DB를 구축·서비스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건축 서비스산업 육성 등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31-90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관왕동) 아크로타워 B동 706-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B 706-1, Acrotower Office, 230 Simin-dae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431-908, Korea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